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유스티노스 철학자 순교자

부활 후 제8주일 / 오순절(성령 강림)

성 요한 러시아인 고백자, 성 엘라디오스 주교순교자

조과복음 / 요한 20, 19-23(조과복음 9와 동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오순절 / 봉독서 79-80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오순절 입당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5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오순절 시기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6
- 사도경 : 사도행전 2, 1-11 / 265. 봉독서 101
- 복음경 : 요한 7, 37-52, 8, 12 / 106. B 31
- 오순절 영성체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침범을’ 대신 ‘오순절 찬양송’/265. 오순절 예식서 84
- 이어서 ‘성령 강림 대만과’ / 오순절 예식서 88-93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유스티노스 철학자 순교자

교회의 성인 중에는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교회가 큰 박해를 받던 시대에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박해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호하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러한 변증가 중 한 명이 교회에서 6월 1일에 축일로 기념하는 성 유스티노스 철학자 순교자(AD100~165)입니다.

『변증』이라는 제목의 한 책에서 성 유스티노스는, 온갖 고문과 박해에도 그리스도인

들은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박해가 심해 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도리어 증가했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면, 그보다 더 많은 가지가 새로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성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요한 15:2)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커다란 포도나무입니다.

오순절, 영적 강력함!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룩한 성령께서 또 하나의 생명으로 강한 바람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협조자”(요한 14:16)께서 ‘교회의 체제’를 구성하시고, 거룩한 사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시고 신자들에게 ‘위로부터의 힘’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빛나고 성령의 빛을 받아 영적으로 내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들의 선교 활동은 더욱 더 빛을 발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에도 의심하고 동요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전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갈릴래아의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하고 빛나는 교회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이들을 이끄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인간적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해졌고, 그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참된 구원의 한 가지 진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거룩한 사도들이 받았던 하늘의 선물인 거룩한 성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내려오실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하느님의 지혜, 모든 죄의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 이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빛을 향해 눈을 뜨듯이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순결한 위로자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영혼 안에 오시어 하느님의 은총과 무한한 힘을 주시기를 «진리의 성령»께 간청합시다. 우리의 생명 안에 하느님께서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생명을 주시는 모든 선의 보고»이신 분께 간청합시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의 영혼에 내려오셔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실 것이며 하느님 왕국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작은 촛불이 할 수 있는 것

저녁이 되었다. 한 남자가 작은 초를 가지고 나선형으로 된 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초가 물었다.

“배가 항구로 가는 길을 비추기 위해 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항구에 있는 어떤 배도 이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내 불꽃은 너무 작아서……” 초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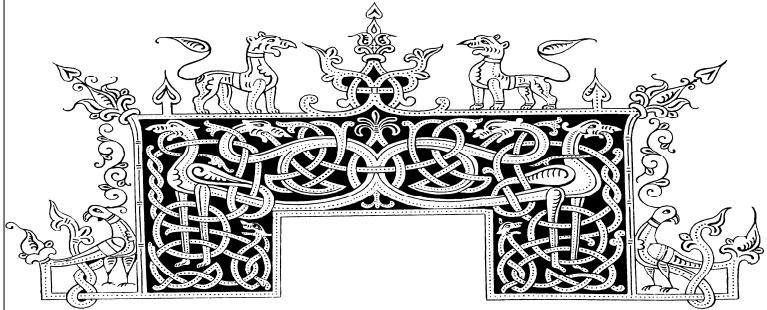
“네 불꽃은 비록 작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환하게 계속 타오르기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게 맡겨.” 남자가 말했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르자, 남자와 초는 커다란 등잔 쪽으로 갔다. 남자는 작은 초로 등잔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곧바로 등잔 뒤에 있는 잘 닦아서 윤이 나는 거대한 거울이 등잔에서 비추이는 광선을 반사하였고, 그 빛은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근방과 깊은 바다 속에까지 퍼져나갔으며, 배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길을 비추었다.

이처럼 작은 초가 엄청나게 큰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가리켜주듯이, 비록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따뜻하고 선한 본보기라는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점, 운명을 바꿀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꽃 같은 것일지라도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유도 등처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당신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참으로 충실한 정교인이어야만 합니다.

▶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금식 해제

이번 주간은 오순절 축일 기간으로 수, 금요일에도 금식이 없습니다.

■ 성화 수업 시작

하느님의 은총으로 소존 야누디스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성화 수업이 지난 5월 21일(월)에 시작하였습니다. 20여 명의 수강생들이 성화에 대해 기본적인 신학적 가르침을 시작으로 성화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모회보’ 성화와 ‘성 니콜라스’ 성화를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정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르는 성화를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5월 28일(월) ▷ 성령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 6371 / Fax (02) 365- 2698 / www.orthodoxkorea.org